

## 중공은 왜 파룬궁을 박해했는가?

《9 평공산당》은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까밝혔다. 중공은 거짓말과 폭력으로 일궈세우고 “가짜, 악독, 투쟁”으로 생존을 유지하며 인류력사를 “계급투쟁사”로 간주한다. 중공은 토지개혁, 3 반, 5 반, 대약진, 사청, 문화대혁명 등 각종 정치운동을 끊임없이 일으켜 8 천만 무고한 중국동포들을 살해했다.

파룬궁학원들이 “쩐싼런”을 수련하여 자각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중공의 “무신론”, “가짜, 악독, 투쟁”, “하늘땅과 싸운다” 등 그릇된 이론과 상반된다. 몇십년동안 중공의 거짓말에 미혹된 선량한 중국사람들은 파룬궁학습을 통하여 삶의 목적과 의의를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몇년동안에 급속히 1 억으로 증가되어 중공당원의 인수를 훨씬 초과했다.

파룬궁을 료해하는 사람들은 다 알다싶이 리홍지사부님께서는 1996년 9월 3일에 발표한 “수련은 정치가 아니다”라는 경문에서 《본직사업을 잘하는 외에 정치와 정권에 대해 흥취를 느끼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했다. 파룬궁은 자유로 수련하는 군중단체로서 사부님의 말씀대로 중공과 “군중쟁탈”를 하지 않으며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8, 9 십년대에 소련을 위수로 한 공산국제진영이 무너져 목전에 중공 등 몇개 공산국가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는 중국민중을 각성시켜 민주, 자유, 인권 등 현대문명사상을 접수하게 하였다. 이에 당황한 중공은 국내민중의 시선을 돌리고 가짜 “적”을 만들어 한차례 정치운동으로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려고 했다. 이리하여 중공은 파룬궁을 목표물로 삼고 몇년동안 비밀조사를 했지만 파룬궁의 어떠한 위법행위도 발견하지 못했다. 강택민을 위수로 한 중공악당은 사육과 질투로 인해 “파룬궁은 당과 군중을 쟁탈한다.”, “당과 나라가 망한다.”는 거짓말을 날조하여 1999년 7월 20일에 파룬궁을 탄압했다.

중공은 미친듯이 수많은 파룬궁학원들을 로교소, 감옥, 세뇌반에 불법적으로 가두고 온갖 혹형을 감행했고 심지어 파룬궁학원들의 생체에서 기관을 적출하여 고가로 팔아먹었다. 그로하

여 광대한 파룬궁학원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국인민들에게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하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수련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며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지할 것을 호소했다.

전세계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여, 파룬궁학원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제지시키자. 정의를 주장하는 모든 당원들이여, 하루 속히 중공당조직에서 퇴출하여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자.

### “쩐싼런”미술전람이 영국에서 개막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쩐싼런미술전람은 영국 버밍한의 멜버스에서 개막되었다. 시의원 잼스 하치스는 《이번 미술전람에서 나는 많은 경지가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고 사람들이 혹형과 시달림, 살해를 당한 사실을 보고 매우 놀랐다.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에 대해



시의원 잼스.하치스

들은적은 있었지만 료해가 많지 않았다. 파룬궁과 같은 세상의 보편적가치가 있는 단체가 중국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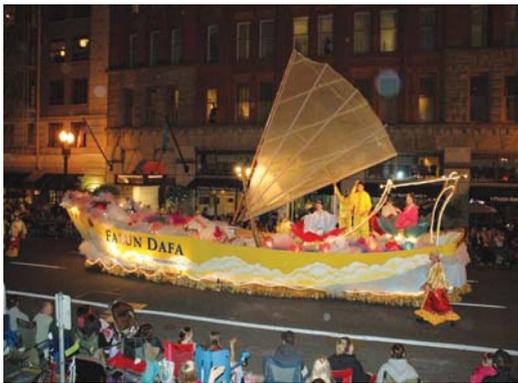
### 영국 국제체육절에 환영을 받은 파룬궁학원들

지난 6월 25일 영국국제체육절에 파룬궁학원들은 프레스둔공원에서 전



시판을 꾸려놓고 파룬궁진상 전단지들을 배포하고 5 조공법을 전시하여 민중들의 환영을 받았다.

# 장미절에 또 상을 탄 파룬궁학원



지난 6월 4일 저녁, 미국 오레곤주 장미절 시위행진에 참가한 파룬궁대오는 25만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등불장식 3등상과 사회구역부 2등상을 탔다.

# 국제 반혹형일에 우크라이나 파룬궁학원들이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폭로



반박해서명을 하고있는 민중들

을 혹형하고 박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거행하여 민중들에게 중공이 파룬궁을 12년동안 잔혹하게 박해한 죄행을 폭로했다.

### 풍만툰 촌민들의 련명신

최근에 길림성 풍만구 왕기진 풍만툰 전체 촌민들이 련명신을 써서 길림시 각급 정부 및 유관부문에 보내어 파룬궁학원 류지신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 연변박해진상 주희옥은 죄가 없다

연길시파룬궁학원 주희옥(朱喜玉)은 신앙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10여년동안 진달래광장에서 아침런공을 견지하여 30여차례나 중공악인들에게 랍치되어 모진 박해를 받았다.

지난 6월 13일, 주희옥은 연길시법원에서 비밀로 개정한 법정에서 자기의 변호서를 읽으려 했으나 제재를 당했다. 주희옥은 자기를 박해한 악인들을 폭로하고 나서 경제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자신은 중공의 피해자이고 죄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법정심판이 끝나자 ‘법정휴식’을 선포했다. 지난 6월 22일 아침, 연길시국보대대 경찰들이 주희옥집에 가서 그를 붙잡아 대성세뇌반에 가두었다. 그날 오후 4시경에 연길시법원 악인들이 세뇌반에 와서 주희옥에게 4년판결서를 하달하고 상소기한은 10일이라고 알려주었다. 주희옥은 중공의 불법판결을 견결히 부정했다.

중공의 악인들에게 묻노니, 광명정대하게 런공을 견지하여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하는것이 죄란 말인가? 우주의 특성 “쩨싼런”원칙에 따라 신쌍을 제고하여 좋은 사람이 되는것이 죄란 말인가? 사실을 날조하여 파룬궁을 모욕, 중상하고 파룬궁학원들을 박해한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까밝히고 파룬궁진상을 알리는 것이 죄란 말인가? 주희옥은 아무런 죄가 없다. 주희옥은 파룬궁을 수련할 인권자유가 있으며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할 언론자유가 있다. 파룬궁학원들의 인권자유와 언론자유를 박탈하고 파룬궁을 탄압하고 파룬궁학원들을 불법적으로 랍치하고 감금하고 판결하며 파룬궁학원들을 잔혹하게 전기충격을 하고 독주사를 놓으며 살인하며 심지어 그들의 생체에서 기관을 적출하여 고가로 팔아먹는 중공악당은 최악이 크서 멀지 않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

..... **폭로** **연변박해소식** .....

- 지난 6월 1일 저녁 7시경, 7,8명 악경들이 연길시파룬궁학원 박금자(朴今子)집에 뛰쳐들어 그를 랍치했다.
- 지난 6월 22일부터 꾸린 룡정시세뇌반에 파룬궁학원 장옥수, 리씨녀사 등이 갇혀 박해를 받고있다.
- 지난 6월 27일, 팔가자파룬궁학원 석수영(石秀英)은 화룡시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집수색을 당했다.